



한·중·일 경제공동체 어디까지 왔나
인구 15억,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가자

새로운 성장엔진, 신흥국과의 FTA 전략은?



“한·중·일 FTA는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중·일 3국 간에 FTA가 맺어져 역내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 경제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갖게 됩니다. 경제교류와 인적·문화적 교류가 증대되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새로운 동북아 협력체제 정착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일러스트 서용남



제12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대상 수상팀 LESFERS(레스퍼스) “FTA,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을 맞아 한국 무역협회·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대학(원)생 무역논문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LESFERS(레스퍼스) 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FTA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경제학도답게 저희들은 평소에도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FTA 또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4명은 지난 여름 공모전 준비를 위해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두 명은 경제학부 동아리인 LES(Law and Economics Society: 법경제학연구회) 소속, 두 명은 역시 경제학부 동아리인 SFERS(SNU Financial and Economic Research Seminar: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세미나) 소속이었습니다. 두 동아리의 이름을 합친 것이 저희 팀의 이름입니다.

처음엔 주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중 FTA라는 주제를 찾게 되었고, FTA가 관심을 많이 받으니, 우리가 허술한 점을 찾아서 대안을 내보자며 FTA 협정과 국내대책을 살살이 뒤졌죠. 근데 웬일입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놨고, 유관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방향을 돌렸죠. 앞으로 맺을 FTA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보자는 당돌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지난해 봄 개시된 한·중 FTA 협상이 핫 이슈였습니다. 평소 경제동아리에서 자주 인용되던 ‘중력모형’을 여기에 대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인력시장을 개방한 사례를 찾아 개방 수준에 따른 서비스 시장의 FTA 효과를 추정했지요. 대학생에게는 어려워 보이는 이론에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분석 방법을 접목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FTA가 한국의 무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찬성보다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내용을 따져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FTA 체결뿐만 아니라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한국경제를 이끌게 될 우리 젊은이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국문]

정리/우종국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01 FTA 캠페인

제12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대상 수상팀
LESFERS(레스퍼스)

04 인트로 칼럼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 가속화

커버 스토리

한·중·일 경제공동체

인구 15억,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가자

06 세계는 지금 블록화 경쟁 중

밖으로 세지고, 안으로 풍요로워지는 블록화가 대세

10 14조 달러의 세계 3대 통합시장 꿈꾸는 한·중·일 FTA

역내 분업화·무역비용 절감으로 효과 커

12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이슈와 과제

각국 이해관계 각축장... 주도권 잃지 말아야

14 특집 인터뷰: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FTA로 수출 '쑥'... 고부가 제품 개발 '탄력'



10



18



27

표지 일러스트 허라미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2월 4일(통권 9호)
발행처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발행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



20

스페셜 리포트

30 서두르는 만큼 득이 되는 신흥국 FTA

떠오르는 유망주, 신흥국을 잡아라

32 발효 4년차 맞는 한·인도 CEPA 평가와 비즈니스 전략

성장 잠재력 '무궁무진'... FTA 효과 본격화 단계

FTA 아카데미

34 FTA활용 탐구생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협정문의 요건을 만족해야 역내산 인정

FTA 뉴스

36 FTA 체결국 무역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컬쳐 윈도우

38 알고 보면 비슷한 한·중·일 설맛이 풍경

별별랭킹

40 2012년 한국의 10대 수출 대상국은

FTA 즐기기

16 그래픽 뉴스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FTA 효과 '컸다'

17 카툰

대한민국! 미국을 사로잡대!

18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수출산업의 메카... 사후검증 대비 주력할 것

20 강소농 천하: 경북통상

울릉도 부지쟁이, 미국서 대박 이룬 비결은?

22 FTA 유관기관 탐방: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국가자격증으로 격상... 위상 달라져

24 FTA 유망 직업: 관세사, 유가 헤징 전문가

04학번 커리어 우먼들의 FTA 이야기

26 FTA활용 석사과정

FTA 선도할 '쌍크탱크'급 인재 양성

27 FTA 활용 지침서 'FTA, 내 손안에' 발간

"FTA 활용, 어렵지 않아요"

28 지상중계

① 한국무역협회의 '겨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특강'

젊음의 열기로 FTA에 귀 '쫓긋'

② 한중일 기업인 신년교류회

미국, 유럽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 탄생 기대



32



38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속화

세계 3대 경제블록, 대외적 영향력 ‘파워 업’

글/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EU와 NAFTA의
역내교역비중이 각각
64.4%, 39.9%에 달하는데
비해 한·중·일의 역내
교역비중은 21.3%에
불과하다. 그 결과
한·중·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EU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
경제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FTA는 3국간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2년 11월 18~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중·일 FTA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다. 이로써 한·중·일 FTA,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3개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이번 다자간 FTA 협상 개시 선언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EU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나 MERCOSUR(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의 관세 동맹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역내국 간 자유무역 지대를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U, NAFTA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이미 1990년대 초에 제도적 경제통합을 이루고 역내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온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는 그동안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제도적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동력

이번 한·중·일 FTA, RCEP 협상 개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협상에 참여하는 역내 주요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본은 G2로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인데다, 한국이 일본에 앞서 EU, 미국 등 거대경

제권과의 FTA를 마무리 하고 작년 5월 2일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자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중·일 FTA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펼치고 TPP를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채 아태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자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참여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적극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적 동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외교적 필요성에 의해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부쩍 커진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아·태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급성장하는 거대 잠재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TPP를 중심으로 아·태 지역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 3월 시작된 TPP 확대협상에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TPP를 징검다리 삼아 궁극적으로 APEC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타결은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추동력이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20.4%(14.3조 달러)로 NAFTA 25.7%(18.0조 달러), EU 25.1%(17.6조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블록이 된다.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워 RCEP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지만, 한·중·일 3국의 정치·경제적 파워를 무시할 수는 없다. RCEP에서 한·중·일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72.2%(14.3조 달러), 무역비중은 63.2%(6.4조 달러), 인구는 44.8%(15.2억명)에 달하며, RCEP 내 교역비중도 54.0%(2.4조 달러)에 달한다.

한·중·일 3국의 교역구조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수출, 중국에서 가공해 선진시장에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최종재 수출비중이 낮아 역내 교역비중은 타 경제블록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EU와 NAFTA의 역내교역비중이 각각 64.4%, 39.9%에 달하는데 비해 한·중·일의 역내 교역비중은 21.3%에 불과하다. 그 결과 한·중·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EU 재정위기와 같

은 대외 경제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FTA는 3국간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경제통합은 동북아 평화체제로도 이어져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중·일 FTA의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모든 분야 협상을 일단 동시에 개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결과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할지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양허방식은 상품은 양자 및 3자 협상방식을 병행하되, 서비스, 투자 및 규범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 수준과 폭에 관해서는 3국간 입장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제조업은 강하지만 서비스분야는 약하기 때문에 서비스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상품무역보다 서비스 무역에 협상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평균관세율이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어 상품무역 부문의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 일본은 취약부문인 농업분야의 개방수준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데다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이 2.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상품 관세인하 보다는 농업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일본의 시장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조업은 일본에 대해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중국에 대해서는 섬유, 생활용품, 범용기계류가 민감분야가 된다.

한·중·일 FTA가 RCEP, TPP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방수준과 범위가 넓은 포괄적 협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역내국간 통일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해 FTA 중첩에 따른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효과를 개선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표준 및 상호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역내 기업들이 무역에 따른 제비용을 절감하고 손쉽게 교역을 확대할 수 있게 무역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3국 시장의 내수시장화를 통해 경제교류를 확대함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를 증대시켜 3국간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K]

세계는 지금 블록화 경쟁 중

밖으로 세지고, 안으로 풍요로워지는 블록화가 대세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및 블록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양자간의 FTA가 심화되는 한편, 다수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제블록별 합중연맹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 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 지역공동체끼리의 경쟁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선진국 재정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다. 글/이진원 기자

오늘날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 간에 상호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다.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은 FTA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지역 무역협정은 경제통합 발전 단계에 따라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예: NAFTA), 회원국 간에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예: MERCOSUR), 관세동맹에 더하여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예: EEC), 이에 더해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단일통화·정치통합 수준의 단일시장인 완전경제통합(예: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의 EU)으로 각각 구분된다. 현재 이행 중인 지역무역협정 중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회원국 간 단일화폐 도입 및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을 거쳐 사회통합까지 추진 중인 EU를 예로 들 수 있다.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 EU

대표적인 단일 시장이 유럽연합(EU)이다. EU는 유로화(17개국) 공동 통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뤄낸 공동체로 평가되고 있다.

EU의 모태는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다. 이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결성되면서 ECSC와 더불어 유럽통합의 세 축이 마련됐고, 이들 세 개의 공동체가 통합되며 1967년 유럽공동체(EC)가 탄생했다. 그리고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며 EU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1996년 통화동맹이 성립되고 1998년 유럽중앙은행(ECB) 설립을 거쳐 2002년에 공동 화폐인 유로가 정식 유통되면서 완전한 형태의 경제 연합을 달성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리스본 조약을 채택하며 대대적인 정치 통합을 이뤄냈다. 지난해에는 유럽 평화와 화합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7월 가입 예정인 크로아티아를 포함하면 EU의 회원국은 28개국이 된다.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다. 2011년 현재 GDP 규모는 17조6,108억 달러로 경제규모 면에서 2004년 이후 줄곧 미국(15조756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단일 시장으로서의 EU가 구축되면서 유럽은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돼 지역 전체의 성장과 고용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 또 유로화의 도입은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최근 재정 위기로 인해 EU 및 유로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거대 경제공동체에는 다소 위협성도 내재해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대규모 시장 형성은 틀림없는 장점이다.

또한 EU가 결성되며 유럽 전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1인당 GDP가 3만1,607달러(IMF, 2011년)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27개 회원국 중 17개 회원국이 단일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수와 유로존(유로화를 정식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통칭) 가입국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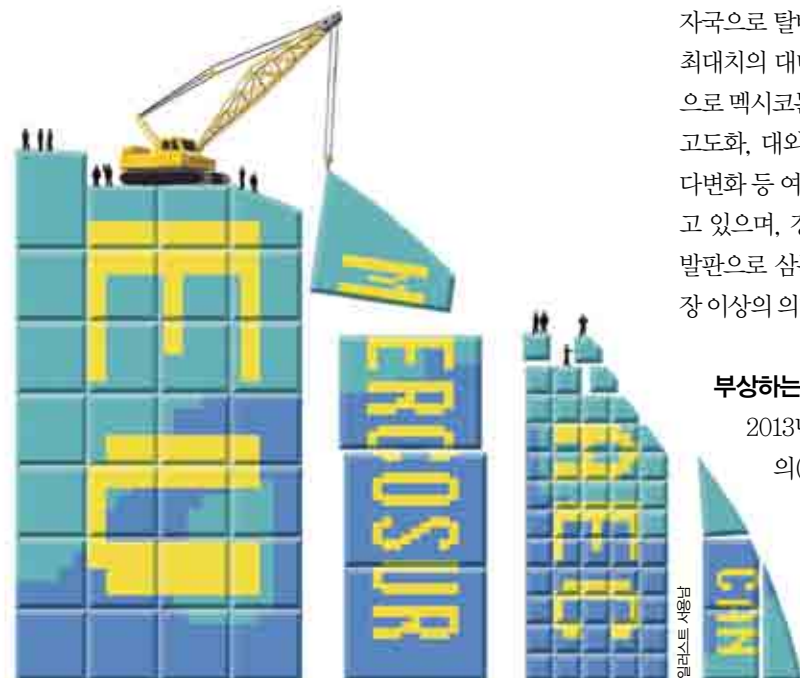
사라진 관세 장벽에 성장세 지속, ASEAN

EU가 재정위기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제공동체다.

ASEAN은 역내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및 지역 내의 안정 등 많은 부문에 걸친 협력을 취지로 1967년 8월 8일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국제협력기구다.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5개국으로 시작해 1982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을 받아들였고, 1997년 미얀마, 라오스를 가입시켜 9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캄보디아도 가입함으로써 아세안은 인구 6억 명에, 역내 GDP 2조1,764억 달러(IMF, 2011년)에 이르는 거대 지역공동체가 됐다.

ASEAN은 어느 경제공동체보다 높은 성장을 거두고 있는 지역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를 겪었던 2011년에도 5.2%의 성장을 거뒀을 정도다. 2012년 성장률은 5.4% 수준으로 추정되며, 2013년 성장률도 5%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의 기반은 경제 통합의 노력에 있다. 우선,



역내 국가들에 부과되던 관세가 2010년 1월 철폐(우선 6개국 철폐, 2015년 역내 완전 철폐)됐다. 2010년 4.4%에 달하던 역내 평균 관세가 2010년 0.9%로 대폭 낮아지면서 교역 자유화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그 해 7.9%라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나타났다. ‘아시아판 EU’라 불리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창설되고 나머지 4개국까지 관세 장벽이 사라진다면 더 큰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통합의 노력은 인프라 투자로 이어졌다. 메콩강 유역개발사업(GMS), 방콕~미얀마 서부 중합물류망 형성 등 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통합의 상징이지만,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세안 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 협력 및 투자 유치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협정, NAFTA

1994년에 발효된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선진국(미국, 캐나다)과 개도국(멕시코) 간에 체결된 최초의 협정으로 NAFTA 체결 당시에는 멕시코의 경제종속이 우려되었으나, 멕시코가 생산거점으로 포지션을 확고히 하면서 발효 후 1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탈바꿈했으며, 2011년에는 1,00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멕시코는 NAFTA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 투자 확대, 투자국의 다변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시에도 이를 바탕으로 조기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는 등 멕시코에 있어 NAFTA는 교역 촉진의 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상하는 세계의 경제공동체들


2013년 떠오르는 신흥 경제공동체에 걸프협력회의(GCC)를 빼놓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지역 6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는 1981년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안보 협력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경제 협력도 주된 과제 중 하나였다.

세계 주요 경제공동체의 현황


- GDP는 2011년 기준, 출처는 IMF
- 무역량은 2011년 기준, 출처는 한국무역협회
- ※()안은 전 세계 대비 비중을 뜻함.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참여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인구 4억6215만 명(2011년)
GDP 17조9685억 달러 (25.7%)
무역량 5조4293억 달러 (15.0%)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스페인어)

참여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
인구 1억 111만 명(2011년)
GDP 5953억 달러 (0.8%)
무역량 2479억 달러 (0.6%)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참여국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4개국)
인구 2억683만 명(2011년)
GDP 1조9072억 달러 (2.7%)
무역량 1조806억 달러 (2.9%)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mon Sour(스페인어)

참여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올해 4월까지 자격 정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인구 2억7549만 명(2011년)
GDP 3조3247억 달러 (4.7%)
무역량 8320억 달러 (2.3%)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GCC 공동시장이 창설된 것이 그간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GCC 공동시장 내에서 GCC 회원국 국민들은 영업활동, 투자, 취업 등 경제활동은 물론 여행, 거주, 교육 등의 제반 생활분야에서도 모든 회원국내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또 GCC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동통화 창설 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2013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걸프 중앙은행(GDB)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관세동맹 형태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이 대표적인 경제공동체로 꼽힌다. 메르코수르는 정식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만 합쳐도 인구 2억7,549만 명에 경제규모 3조3,247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메르코수르에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공동시장 형태의 안데스 공동체(CAN)도 남미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 1억111만 명에 경제규모는 5,953억 달러다. 2008년에는 메르코수르와 안데스공동체 두 경제공동체의 국가들에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4개국까지 가세한 남미국가연합(UNASUR)이 출범되기도 했다.

2012년 6월에는 칠레를 주축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4개국이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라는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구축되기도 했다. 이들 4개 국가는 모두 태평양 연안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회원국 4개국의 인구는 총 2억683만 명에 국내총생산은 중남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9,072억 달러다. 큰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의 성장세도 높아 페루의 경우 2011년 6.9%, 2012년에도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동맹은 회원국 간의 비자 면제를 최우선으로 실시해 인적 자원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이어 자유무역협정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동 접근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지역경제통합의 추세에 맞춰 지역경제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최근까지만 해도 빈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륙이었으나, 자원가격의 상승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보이면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아프리카에는 11개의 경제 공동체가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경제 공동체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다. 이집트, 케냐, 스와질랜드 등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COMESA는 역내 GDP, 인구규모 면에서 아프리카의 최대 지역 경제공동체다. COMESA는 역내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0년 FTA 출범을 거쳐 2009년 관세동맹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FTA 출범 이후 COMESA 역내 무역이 2000년 30억 달러에서 2008년 15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사하라 주변국가 공동체(CENSAD), 서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아랍마그레브연합(UMA),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의 세부 기구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거나 관세동맹을 맺고 상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지역 내 공통 여권을 도입한 상태다.

복잡성의 비용 줄일 수 있어

하지만 지역주의가 확산돼 세계 무역 체계가 복잡하게 되다보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난다. 즉 한 국가가 각각 2~5개의 지역 공동체에 중복 가입돼 있어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all)’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별 공동체들의 결속과 영향력이 약화되어 통합 진전이 더디지고 지역경제공동체 간의 비생산적인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논의가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내 확고한 경제 통합체가 이뤄지면 이러한 ‘복잡성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한중일 FTA의 경우 세계 3대 시장의 규모로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무역, 서비스 등에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이룰 수 있으며, RCEP의 경우도 한중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경제협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역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포괄경제협정에서는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스파게티 볼 효과가 적어 역내 무역장벽을 폭 넓게 제거해 FTA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1990년대 말까지도 한·중·일 간의 제도적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시장에 의한 기능적 통합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0~2011년 간 한·중·일의 역내무역 비중은 12.3%에서 21.3%로 현저히 확대되었고, 한·중·일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5.2%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하였다. 2011년 현재 한·중·일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서, 한·중·일은 동아시아의 자연적 무역블록 또는 단일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였다.

글/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전문연구원(국제통상학 박사)



14조 달러의 세계 3대 통합시장 꿈꾸는 한·중·일 FTA

역내 분업화·무역비용 절감으로 효과 커

한·중·일의 역내무역 증가는 동아시아 분업구조 정착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동아시아 분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1990년대 초까지 한·중·일과 ASEAN(아세안) 간의 분업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양대 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서 대중, 대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각각 10.7%, 11.9%에서 2011년에는 24.2%, 7.1%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분업구조의 정착은 3국간 경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주의를 촉발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기능적 통합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FTA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통합 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중·일의 지역통합 또는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2003~2009년간 3국의 대표연구기관이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2009년에는 이것이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면서 한·중·일 지역통합 논의는 더욱 진전을 보았다. 2010년 제 주도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시장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3국 시장통합의 수단으로서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중·일은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통상장관 회의에서 마침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금년 초에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FTA로 한·중·일 무역장벽 해소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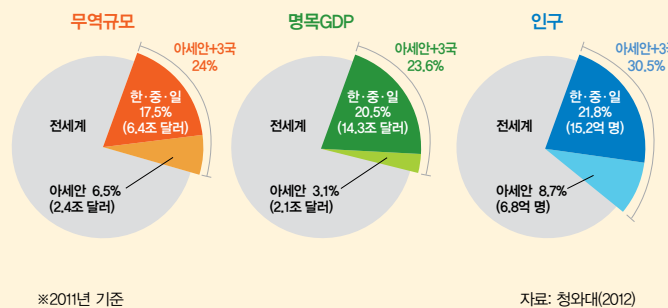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은 각각 동아시아 역내의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고, 그 밖에 역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3국 간의 FTA는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3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관계도 작용하였다. FTA를 체결할 경우 각국이 안게 될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를 통해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3국 모두의 GDP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3국간에 점차 공유되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해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3국간 FTA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다양한 무역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또한 3국 간 경제구조와 무역구조의 보완성이 높으므로 FTA를 통한 수직적 산업내 무역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3국 시장의 통합은 거대수출시장을 탄생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적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은 유교 및 불교 전통을 공유하여 문화적 친밀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한류가 중국과 일본에서 광범위한 수요층을 확보하면서 한국과 한국 상품에 대한 중·일 국민의 문화적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3국의 FTA 체결은 동아시아 내에 중첩적으로 체결되는 FTA로 인해 상승하는 FTA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즉, 각 FTA의 규범(대표적으로 원산지규정)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축소시키고 향후 동아시아 FTA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요컨대, 한·중·일 FTA는 3국의 경제규모와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체결될 경우 그 효과는 여타 지역과의 FTA보다 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이는 한·중·일을 넘어 아세안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FTA 강국인 한국이 동북아 경제통합 주도해야

그 동안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경로에 대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가운데 3국 간 경제력 격차와 역사적, 정치적 갈등요인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일본, 중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이후 이를 토대로 한·중·일 3자 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추진방안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시도한 바 있고(2004년 협상 중단 후 2012년까지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중), 중국과는 2012년 5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양자 간 FTA를 추진할 경우 FTA 이익의 균형적인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3자 간 FTA를 체결할 경우 각국의 이익과 손실 조정이 보다 쉬울 수 있으며, 따라서 협상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한·중·일 FTA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것에 반해 일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일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중·일 FTA 협상이 난항에 직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투자 부문의 자유화를 증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3국 시장의 통합은 거대수출시장을 탄생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적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이슈와 과제

각국 이해관계 각축장...주도권 잃지 말아야

현재 한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협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자간 FTA로서 한·중 FTA는 한국의 FTA 허브 국가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 3대 경제공동체인 동북아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RCEP은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협상은 우선순위와 속도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IFP) 사진/한국경제신문



한국의 무역에서 RCEP 참여국의 비중은 47.0%(2011년)로,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GDP는 10년 후 1.21~1.76%의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8~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함께한 각국 정상들 모습.

2013년 동아시아 정치경제는 상당한 지형변동 시기를 맞고 있다. 한·중·일 3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지난 20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사상 유례 없는 엔화 절하를 추진하고 있고, FTA 추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앞으로 10년 간 중국을 통치할 시진핑 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내수중시 정책에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확대를 위한 전략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 대내적인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대외통상전략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통상전략 수립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국내 문제 못지않게 대외 현안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CEP, 각국의 이해관계 수위 다양해

기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통상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점을 어떤 방법을 통해 RCEP 및 한·중·일 FTA와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교적 전략에 따라 2005년 호주, 뉴질랜드, 인도로 확대되어 '아세안+6 정상회의(정식명칭은 '동아시아정상회의')'로 발전했다. 2012년 11월에는 일본과 아세안 주도로 아세안+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경제통합의 시발을 의미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기존 아세안 FTA(AFTA) 체제와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의 공고화에 주력해 왔고, 한·중·일은 3국 간 FTA 협상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동아시아에는 AFTA, 한·중·일 FTA 및 RCEP이 주요 무역블록으로 추진될 것이고, 한국은 이런 블록화 경쟁에서 어떻게 실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협정이 상호 견제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통합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RCEP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특히 AFTA(아세안 중심주의)와 한·중·일 FTA가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기존 아세안+1(양자 간 FTA) FTA 체제를 근간으로 아세안이 지역경제통합에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중·일 FTA가 형성되면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동북아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금년 중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제 정치체제와 농업부문의 강력한 정치권 로비로 그동안 일본의 FTA 정책은 한국과 중국에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2011년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전임 노다 정부는 TPP 협상 참여를 대대적으로 공언하였지만, 농업계의 반대로 결국 TPP 가입서류를 제출해 보지도 못한 채 정권을 자민당에 내주었다. 미국 및 EU와의 FTA 협의를 언론을 통해 간간히 흘리고 있지만, 일본 국내 정치용일뿐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일본 통상당국은 중국의 리더십 부상에 대응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자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보여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RCEP 협상 개시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보다는 일본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RCEP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 주도했던 한·중·일 FTA를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FTA 대체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FTA 허브국' 한국의 리더십 발휘해야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이처럼 각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각축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산지기준 조화,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 선진화 등으로 RCEP 범위를 국한시켜 추진하는 한편, 관세를 포함한 시장개방은 기존 양자간 FTA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RCEP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이 각국과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기준은 주로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어 원산지기준 조화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다. 서비스와 투자 역시 FTA에서 개방되는 것은 별로 없고, 특히 아세안 국가와 인도가 참여하는 RCEP에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RCEP과 한·중·일 FTA 협상 참여를 결정했다.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역내 교역량 증가에 따라 한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은 그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통해 FTA 허브국가로서 성장했다. 이런 이점을 어떤 방법을 통해 RCEP 및 한·중·일 FTA와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문]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FTA로 수출 ‘쑥’...고부가 제품 개발 ‘탄력’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은 지금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미래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하락세이던 섬유패션산업 수출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했고, 2011년에는 수출이 14.6%나 증가한 159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수출 157억 달러로 선방하기도 했다. 섬유패션산업은 올해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163억 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우충국 기자



“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대미 수출에 획기적 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전체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5.9% 증가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계 섬유패션산업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세계 섬유패션산업은 생활수준 향상 및 산업용 신섬유 용도 증가 등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인도, 네시아, 베트남 등)의 섬유패션산업이 급성장하여 세계 섬유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환경은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첨단 기술 및 글로벌 브랜드 등 지식 기반 요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섬유패션산업은 선진국 중심에서 다자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 간 FTA가 확산되고 에코라벨 제정 등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전자, 항공, 의료, 건설, 국방 등 기존 산업에 필요한 초경량, 고강도 첨단소재의 슈퍼섬유, 나노섬유 등 산업용 신소재 수요는 2005년 1,069톤이던 것이 2010년 1,273톤, 2015년에는 2,011톤(추정)으로 연평균 6.5%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현황과 성장 가능성은 어떠합니까?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태동기부터 생산, 고용, 무역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에 앞장선 핵심 기간산업으로 현재에도 세계 8위의 섬유수출과 세계 5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2011년까지 섬유패션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063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2,200억 달러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숙련집약형 산업의 대표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유발계수를 보유해 국내 제조업체수의 9.7%,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섬유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사업체수는 27만5,052개(17.4%), 종사자수는 76만6405명(11.1%)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원사, 직물, 염색가공, 패션의류 등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까지 균형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 분업 단계의 연계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의류는 중저가·범용보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 친환경 섬유에 치중하는 한편, 산업용 섬유 등 신섬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력과 제품 수



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기반 산업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1990년대 이후 세계 섬유패션산업은 의류용과 산업용으로 양분되어 중저가 의류는 개도국이, 고가 의류 및 산업용 섬유는 선진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고가 의류용 섬유개발이 부진하고 산업용 섬유 생산비중도 25% 수준에 그쳐 선진국(60% 이상)에 비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단계별 동반 성장 유도 △섬유패션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산업용 섬유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FTA 체결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넓어지면서 섬유패션업계가 체감하는 변화와 기대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으로의 섬유수출 비중은 2011년 46.9%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38.8%를 기록해 FTA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FTA는 그 자체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도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중저가 섬유제품의 경우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제품으로 인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 큰 시장이 열리는 기회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제고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요구하는 한·미 FTA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국은 섬유쿼터제가 전면 폐지된 2005년 이전까지 한국이 가장 많은 섬유류를 수출하는 교역국이었지만, 이후 수출이 감소하며 현재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은 4위입니다. 특히 시장점유율은 2001년 4.1%에서 2011년 0.9%로 급감한데 반해 중국은 같은 기간 9.3%에서 40.1%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대미 수출에 획기적 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유분야의 경우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멕시코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전체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5.9% 증가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FTA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정부 FTA 협상 지원, 기업의 FTA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기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섬유 생산기업 정보등록을 위한 ‘섬유 생산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2014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 수출 섬유생산기업 등록과 우회수출 방지 기능, 바이어 소싱 및 특별물량 관리 기능 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



2012년 한국의 무역 성적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FTA 효과 '컸다'


2012년 한국은 5,481억 달러를 수출했고, 5,196억 달러를 수입해 285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량은 1조677억 달러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지역별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국·아세안·페루·칠레 등 비교적 최근에 FTA를 맺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글/이진원 기자

2012년은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연초부터 그리스의 유럽 탈퇴 시나리오가 제기되면서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놔다 했다. 여름부터는 쇼크라고 부를 만한 대형 이슈는 없었지만, 만성적인 질환을 앓는 듯 경기는 좀체 풀리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기업들 사이에 2012년에 수출이 크게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한국의 저력은 위기에도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무역(수출+수입)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에 이어 세계 무역규모 순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국이 8위로 올라선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무역액이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감소폭은 훨씬 컸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343억 달러를 수출해 연간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대중

수출의존도는 24.5%로 전년 24.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으로는 한·미 FTA 효과 등으로 승용차(19.5% 증가), 자동차부품(12.5% 증가), 철강제품(17.3% 증가), 석유제품(10.9% 증가)이 사상 최대 실적(제품별 대미 수출)을 경신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585억 달러를 수출했다.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이집트·쿠웨이트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11.4% 증가한 366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는 수출이 31.0%가 늘었다.

주요국 외에도 FTA 체결국 중 비교적 최근에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 증가한 792억 달러, 대싱가포르 수출은 9.9% 증가한 229억 달러, 대페루 수출은 7.7% 증가한 15억 달러, 대칠레 수출은 3.7%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한국의 FTA 체결국별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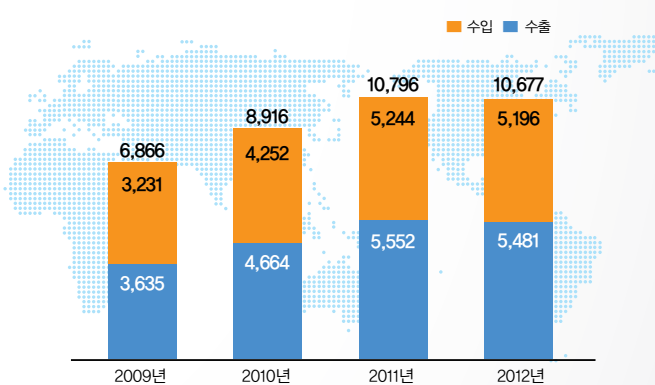
구분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교역액	교역비중
아세안	792	10.4	520	-2.2	1,312	12.3
EU	494	-11.4	504	6.2	998	9.3
미국	585	4.1	433	-2.8	1,018	9.5
싱가포르	229	9.9	97	7.9	326	3.1
인도	119	-5.8	69	-12.3	188	1.8
칠레	25	3.7	47	-3.7	72	0.7
EFTA	15	-17.8	77	49.0	92	0.9
페루	15	7.7	16	-15.9	31	0.3
합계	2,274	2.1	1,763	1.3	4,037	34.7

※교역비중은 전체 교역액(1억677억 달러) 대비 비중. 교역비중 합계에서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를 제외(아세안 교역비중에 포함).

자료: 관세청

한국의 최근 4년간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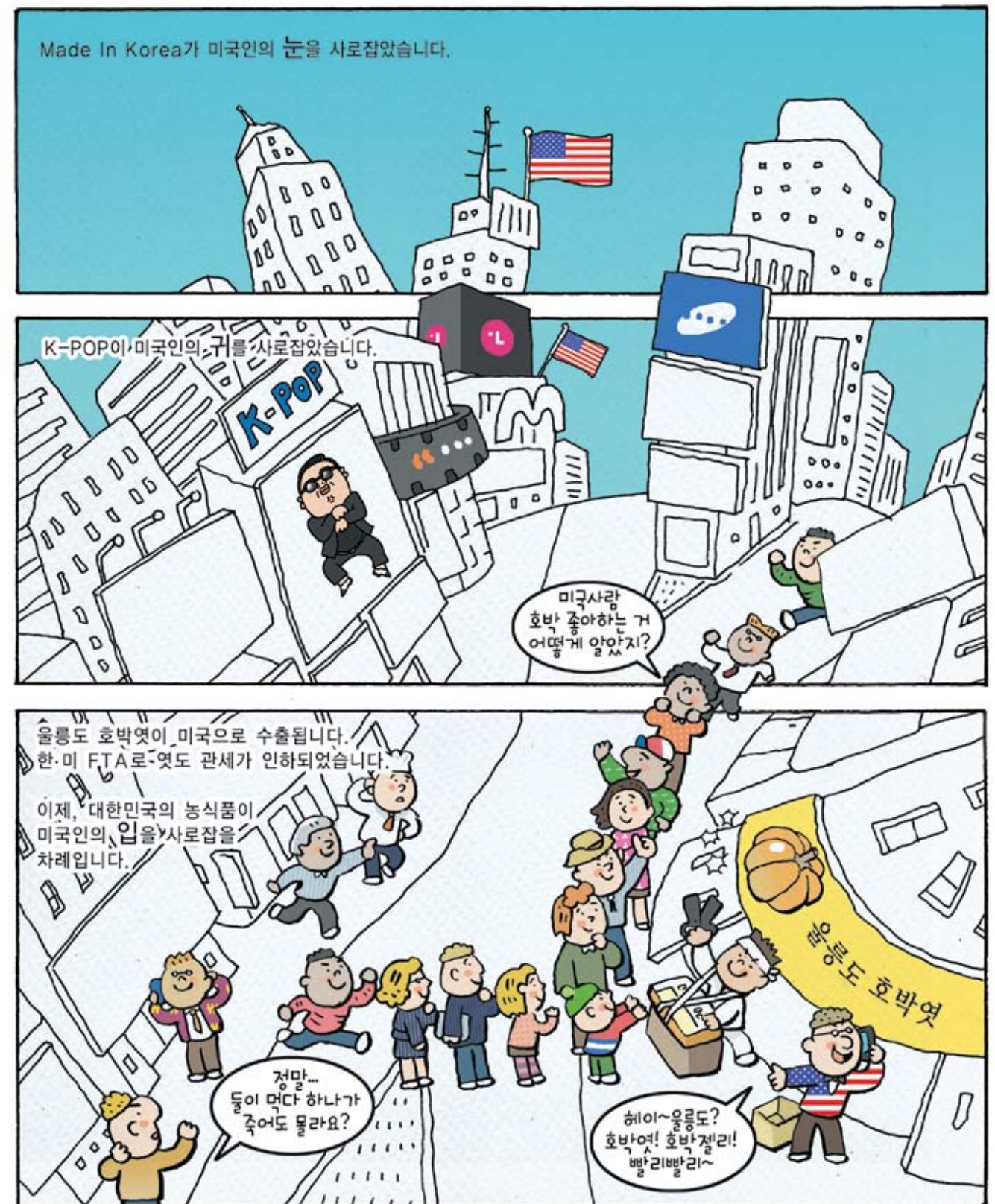


※막대 위 수치는 교역액(수출+수입)임.

자료: 관세청

대한민국! 미국을 사로잡다!

안종만



※울릉도 호박엿은 한·미 FTA로 2.1~5.6%의 관세가 인하되며 지난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울릉도에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1만㎡ 규모의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HS코드: 1704.90-당류·설탕과자)



수출산업의 메카...사후검증 대비 주력할 것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가깝고 서해와 접해 있어 경기도에 못지않은 사업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업체, 대산에는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아산에는 현대자동차, 온양의 삼성전자 등이 대표적 기업으로 협력업체들도 밀집해 있다. 대부분 수출업체들이다 보니 중소기업일지라도 원산지확인서 등 FTA활용 업무의 필요성이 크다.

글/우종국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충청남도를 대표할 만한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한국인삼공장, 해태음료, 남양유업 등의 식음료 업체와 한솔제지, 한국조폐공사, 신도리코, 한국P&G 등 다양한 업종의 생산시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그 중 중소기업은 1만1,715개다. 대부분 수출업체들이다 보니 FTA 활용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충남센터)는 2011년 11월 8일 개소해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충남센터는 개소 직후부터 지역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생겼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1년에는 개소 후 약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FTA 교육 5회(67개 업체 대상), 설명회 2회(29

개 업체 대상), 컨설팅 5회를 실시했다.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 9회의 교육, 212개 업체 대상 4회의 설명회, 24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컨설팅은 반드시 업체를 1회 이상 방문하는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진행했다. 또한 원산지관리사 교육도 3회 실시했는데, 수강생의 교육비 대부분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지난해까지 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 충남센터는 천안세관 및 FTA 유관기관과 함께 사후검증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가시화되기 시작한 한·중 FTA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더불어 충남 지역 업체들에게 한·중 FTA가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성공 사례

FTA활용, 고객이 'OK' 할 때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CASE 1



마사지기기 제조업체 A사

충남 지역에 위치한 A사는 콤팩트형 마사지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수출업체인 B사에 기기를 납품하고, B사는 이를 인도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완제품에 대한 인도의 세번(HS코드)은 9019.10-20으로 기본세율은 7.5%지만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에 따라 2012년에는 5%, 2013년에는 2.5%, 2014년에는 0%로 협정에 따른 실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A사는 직접수출업체가 아니었지만, B사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향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였다.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CTSH(6단위 세번 변경)+RVC35%(역내산 비중 35% 이상)'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가 A사를 컨설팅한 결과, 마사지기의 주요 부품인 메인 커버가 마사지와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되고 있었으나, 미소기준(10% 이내)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충남센터는 메인 커버를 봉제 전 단계에서 별도의 세번으로 수입신고해 국내에서 가공을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경우에도 추가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A사는 향후 발생할 수익에 집중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충남센터의 조광옥 대리는 "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CASE 2



여성용 기능성 속옷 제조업체 C사

1999년 설립된 C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여성용 기능성 속옷인 코르셋을 봉제 가공하는 업체다. 그간 미국과 브라질 등으로 수출이 진행되다 중단된 이후 내수시장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이 주문 상담을 받아 수출을 진행하려던 중, 새로 수출을 의뢰한 바이어가 기존에 수출하던 것과 다른 세번(6212.90-0000)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 이에 대한 확인을 충남FTA활용지원센터로 문의했다.

충남센터는 자체적으로 이를 검토한 것과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세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은 'CC(2단위 세번 변경)+재단·봉제'로 주재료인 라텍스 보강 면직물(세번: 5906.91)과 부재료인 흑아이(8308.10), 스틸본(7320.90), 루프(8308.90), 어깨끈(5806.32), 당목 바이어스(5806.32)의 세번이 모두 변경됐고 국내에서 재단과 봉제가 이뤄져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켰다. 해당 제품의 경우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킬 경우 6.6%(기준 세율)이 0%(협정 세율)로 낮아지게 된다.

충남센터는 C사에게 확정된 품목의 세번을 미국 측 바이어에게 통보하고, 미국 측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제안했다. 또한 미국 측 의견에 따라 수출통관, 환급 등 구체적인 실무진행에 대해 재컨설팅을 받도록 제안한 상태다. 그간 수출이 중단돼 내수 판매에 주력하던 C사는 한·미 FTA의 협정세율로 해당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커지면서 향후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상 센터장이 말하는 FTA 활용 팁



1 두려움을 버리고 일단 시작하라

FTA를 활용한 교역은 계속 증가한다. 피하지 마라. 시작이 반이다.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원산지관리는 시작된다.

2 FTA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라

지역 FTA지원센터, 관세청, 중소기업진흥청 등의 FTA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라. 인기 높은 것만으로도 원산지관리는 앞서 신청하라.

3 협력사 및 국내공급자와 함께 노력하라

공산품의 원산지관리는 혼자 할 수 없다. 협력사들과 협력하라. 중소기업은 원산지 관리를 대기업과의 신뢰 형성 기회로 활용하라. 대기업은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라.

남해북 경북통상 대표가 전하는
농식품 수출 노하우

울릉도 부지갱이, 미국서 대박 이론 비결은?

‘무엇이든 수출합니다.’ 남해북 경북통상 대표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것도 수출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농식품들을 발굴해 수출을 시도한다. ‘잘 될까’ 싶는데 잘 된다. 농식품 수출에도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대표의 말이다. 그가 전하는 농식품 수출의 비결을 들어보았다.

글/우종국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경북통상은 경상북도가 대주주인 무역회사다. 주로 농식품을 수출한다. 경상북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수출할 만한 물품이 없는지를 발굴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2008년 봄 남해북 경북통상 대표는 울릉도를 방문했다. 국내 대표적 청정지역인 울릉도에서 수출할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울릉도의 유명한 나물로는 부지갱이, 명이나물, 미역취, 삼나물, 참고비 등이 있는데, 이 중 남 대표는 부지갱이 사례를 늘 얘기한다.

경북통상은 부지갱이를 비롯한 나물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물들을 말려서 단순히 비닐포장에 넣은 원시적인 형태였다. 미국에 사는 교포 주부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한인 판매상은 “일단 물에 4시간 불려요, 그리고 삶아요. 그 다음에 들기름·마늘 등의 양념을 쳐서 먹으면 되요”라고 대답했다. 너무 번거로운 조리법에 호기심을 보이던 주부들도 들었던 제품을 놓기 일쑤였다. 남 대표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대부분 맛별이인데, 누가 4시간씩 물에 불려서 나물을 해 먹겠

냐”고 운을 뗐다.

이런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상품 개선에 나섰다. 나물을 아예 삶아서 냉동시켰고, 포장은 지퍼백으로 컬러풀하게 디자인을 바꿨다. “그냥 말리기만 한 나물은 새까매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삶아 놓으니까 색이 새파래지면서 먹음직스럽습니다. 또 조리가 간편해지고, 또 묵직해지면서 내용물이 많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냉동이 되니까 ‘가공품’이 되어서 잔류농약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똑같은 나물이지만 공정을 개선하고 포장을 바꿨더니 미국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40피트 단독 컨테이너에 꽉꽉 채워 나갈 정도로 성공적인 수출상품이 됐다.

농식품 수출은 일반 무역보다 리스크 2배

남 대표는 대구은행 입사 후 뉴욕사무소, 홍콩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부장까지 지내면서 무역·통상 관련 금융업무를 주로 맡았다. 2007년 공모를 통해 경북통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경북통상은 1994년 설립되었는데, 당시는 전국의 모든 지방 광역단체에

농식품 수출 전문회사인 경북통상을 맡고 있는 남해북 대표는 2007년 취임 이후 적자기업이던 회사를 5년 연속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농업 수출이 리스크가 큰 사업이지만, 열정과 상상력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 농식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던 때였다. 국내 수출 산업 중 가장 열악한 농식품 수출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북통상, 경남무역의 2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산하 무역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라진 상태다. 경북통상 또한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적자 누적으로 폐업이나, 구조조정이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5개 부서를 3개로 축소하고 20명이던 직원도 14명으로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투병경영, 현장경영, 스피드경영, 고객만족경영을 모토로 체질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무역 교육을 시키는 등 위기 극복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뤘고, 지난해 자본금을 완전 회복했다.

그는 농업이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우선,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농산품만큼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려고 해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신선농산물은 안전성을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잔류 농약 검사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다.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수입국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검사를 깐깐하게 하면 현지에서 폐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무역을 하더라도 농식품은 리스크가 2배라는 것이다. 그간 국내 농식품 산업 비중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역의 일반적 원칙은 똑같다. 하나의 품목으로 한 번의 거래를 튼 뒤, 바이어의 신뢰를 얻어 거래를 지속하면서 품목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3년 전 경북통상으로 일본에서 애호박, 풋고추, 깻잎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나 경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대규모 단지가 없었다. 그러나 남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공급처를 찾아서 수출을 성사시켰다. “단골 바이어 한 명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오퍼가 들어온 이상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 품목의 수출이 지속되면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ID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일본 바이어로부터 신뢰가 쌓이면서 현재는 잔류농약검사 없이 무검사 통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던 회사 분위기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남해북 대표의 또 다른 제안

농업 전공 학과에
무역 과목을
개설하자
직원 채용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국내 농업 관련 학과 어디에서도 무역 실무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무역을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부터 농업 수출 마인드를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2과목 정도는 무역 과목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수출농림수산
식품에도
등급화를 하자
지금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상(上)품’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처럼 등급을 나누면 최고 등급은 평균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급을 섞어서 주면, ‘좋은 것도 섞여있구나’라고 하지 않고 ‘왜 나쁜 게 섞여있어’라고 합니다.



농민들의 수출 지향적 마인드 키워야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농산품을 수출에 적합한 상품으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했다. 경북통상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프리카의 경우 한 때 불인정 농약 검출로 인해 일본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일본에서 지정한 농약만을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고, 농민들도 점차 이에 대한 의식이 싹트면서 수출이 점차 증가하게 됐다. 남 대표는 “우리 직원들도 산지에 나가서 안전성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제는 농민들과도 신뢰가 쌓여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지향적인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농식품 수출의 확대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남 대표는 ‘산업화’를 꼽았다. 앞서 언급한 울릉도 부지갱이 사례처럼 농산품으로 가공품을 만드는 2차 산업(제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잔류 농약 검사에 의한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 대표가 경북통상을 맡은 이후 지역 내 8개 수출기업이 가내 수공업 수준의 가공시설을 기계화·자동화 설비로 바꾸고 국제 기준인 HACCP를 인증받기도 했다.

경북통상은 올해 2월부터 러시아 시장 개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중국 무역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해 올해부터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중국은 자국민조차 중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상황으로, 한국 식품은 고급이라는 인식이 있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 농식품이 안전성과 고급화에 주력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규칙)을 유리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FTA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북통상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의 식품류 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는데, 2007년 31만 달러이던 미국 수출은 2012년 190만 달러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남 대표는 말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소개합니다

‘원산지관리사’ 국가자격증으로 격상…위상 달라져

성남에 위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낭보를 맞았다. 2010년부터 주관해오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이 8개 경제권과 맺은 FTA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파트너와의 동시다발적 협상이 이뤄지면서, 원산지관리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체계적 양성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글/우종국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김두기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FTA를 맺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생산, 충분가공, 서류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원산지 판정은 FTA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수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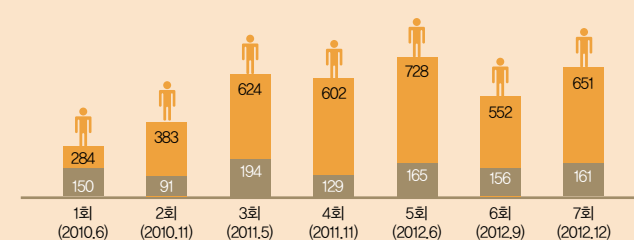
김두기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은 ‘원산지관리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으면서 향후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향후 원산지관리사 자격자를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080만 원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나 기업에서의 관심과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산지관리사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판정과 이에 따르는 서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원산지관리사는 자격 취득 후 기업에서 수출 통관에 필요한 FTA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품목 분류에서부터 협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적용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게 된다. 특정 원재료 때

2013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회차	시험 일자(월.일)	시험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8회	5.4(토)	4.1(월)	4.8(월)~4.17(수)	5.31(금)
9회	8.31(토)	7.29(월)	8.5(월)~8.14(수)	9.30(월)
10회	11.30(토)	10.28(월)	11.4(월)~11.13(수)	12.27(금)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현황



문에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는 국내산 재료로 대체하는 비용증가분과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비교해 유리한 생산 전략을 세우는 능력까지 배양하고 있다. 한·EU FTA(2011년 7월 발효)와 한·미 FTA(2012년 3월 발효)처럼 한국의 큰 수출시장과의 FTA가 본격화되면서 원산지관리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1년까지 연 2회 실시되던 시험을 지난해부터는 연 3회로 늘렸다.

연 3회 시험…4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24시간(8시간×3일)의 교육과정 중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수업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4시간) △수출입 통관 실무(4시간) △원산지 결정 기준(8시간) △품목분류 실무(8시간)로 이뤄진다. 교육은 서울과 성남 지역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치한 성남세관빌딩에서 이뤄지며, 지역에서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비는 30만 원(중식 및 교재비 포함)이지만, 정부·지자체에서 일부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총 36회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으로 자세한 교육 일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A협정 및 법령’과 ‘수출입 통관 실무’는 대학 교수,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분류 실무’는 관세업무 20년 이상의 실무 유경험자가 강의를 진행해, 이론부터 실무를 겸비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험 응시 여부와 상관 없이 원산지관리사 교육에 2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한·EU FTA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수출자 자격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2010년 6월 처음 실시된 1회 이래 지난해까지 총 7회 치러졌다. 3,824명이 응시해 1,046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은 27.4%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5월 4일, 8월 31일, 11월 30일, 총 3회 시험이 실시되며, 올해부터는 모든 합격자는 국가공인자격자로 인정된다. 시험방식은 위 4과목을 2교시(총 120분)로 나눠 보게 된다. 문제유형은 과목 당 25문항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과락) 처리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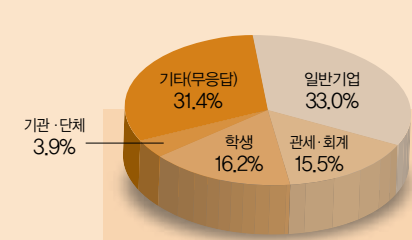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활용 지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09년 2월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현재 직원 수 30명으로 성장했다. 한·EU FTA 및 한·미 FTA처럼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앞두고 체계적인 원산지 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설립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주로 관세청의 위탁을 받아 관세행정예 필요한 원산지 정보의 수집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관세청 위탁사업으로 3개 주제에 대해 총 14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FTA 활용에서 원산지 증명은 핵심적인 과정이다 보니,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구축한 정보를 교육, 컨설팅, 연구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과 발급을 하는 것 외에도, 원산지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상 FTA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닥터컨설팅’을 진행했다. 닥터컨설팅은 지난해 총 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인 ‘FTA-PASS’ 시스템을 관세청 위탁을 받아 개발했다. 2010년 월용, 2011년 어플리케이션용, 2012년 간편 버전을 만드는 등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다.

“

한국의 FTA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으면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소속 구분 (2010~2012년)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주요 기능





FTA 시대 주목받는 이색 직업

04학번 커리어 우먼들의 FTA 이야기

한국이 각국과 맺은 FTA가 본격화되면서 그 결과가 교역량 증가로 가시화되고 있다.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특히 무역 관련 종사자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몸값이 오르는 건 당연지사. FTA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글/우종국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관세사



김주미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건설팅한 기업의 수출 늘어나면 뿌듯하죠”

“관세사 업무는 외근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활동적인 성격이 라면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대기업이든 수출입 업무를 하니까 취업도 잘 되는 편이구요. 전문직이라 또래 직장인보다 연봉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미 관세사가 얘기하는 관세사의 매력이다. FTA 확대로 가장 바빠진 직업이 관세사다.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조언하거나 도와주는 전문직이다.

관세사는 의뢰한 기업을 맡아 프로젝트별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에서 지정된 근무시간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FTA 건설팅처럼 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판정을 도와주고, 스스로 FTA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김 관세사는 어렸을 때 무역업을 하는 작은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아이템만 잘 잡으면 무역은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무역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 전공도 국제통상학(상명대학교 · 04학번)을 선택했다. 무역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관세사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학생 때 준비를 시작해 졸업 직전인 2008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연간 75명을 선발하는 관세사는 최근 경쟁률이 10~13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오르고 있다.

지난해는 김 관세사에게 FTA의 활용 현장을 몸으로 겪을 수 있는 해였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업인 ‘OK FTA’ 사업에 참여해 20개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파주에 있는 포장기계 수출 업체였어요.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사장님까지 생산업무에 참여할 정도였고, 찾아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회사였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FTA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컨설팅 직후 직접 기본교육부터 인증수출자 신청교육까지 다 받으셨죠. 지금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낼 만큼 활용능력이 개발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또래의 젊은이들이 FTA에 대해 별 다른 생각이 없거나, 오

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출입 업무를 현장에서 겪는 김 관세사는 한국에게 FTA는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세계 무역 흐름이 FTA로 인한 비관세로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제조업은 FTA로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농수산물처럼 상대적으로 힘든 분야는 차차 맞춰 나가야 하는 거라고 봐요. 막연하게 바라보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정을 보면 FTA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신영 STX팬오션 운항기술실 대리

“세상 돌아가는 일 매일 살살이 살피죠”

유가 해징 전문가



해운업체인 STX팬오션의 박신영 대리의 현재 직업은 ‘유가 해징 전문가’다. 전 세계를 누비는 상선(商船)이 없다면 무역은 존재할 수 없고, 상선은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처럼 무역에 꼭 필요한 선박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해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임무다.

“대학교 때부터 해외의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 좋았어요. 한국에 온 교환학생들의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외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 받아요.”

대학에서 경영학·심리학을 전공(고려대학교 · 04학번)한 박 대리는 지난해 7월부터 STX팬오션 운항기술실 연료최적화팀에서 유가 해징 전문가를 맡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4년 동안 태평양영업본부 오세아니아팀에서 해운영업을 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고객사의 화물을 전 세계로 나르도록 하는 것이 그가 했던 일이었다.

“해운영업을 하려면 어떤 화물을 어떤 배에 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구요, 또 날씨와 같은 계절적 요인도 알고 있어야 하고, 배가 들어가는 항만의 수위까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그가 하는 유가 해징은 해운영업에서 오랜 노하우를 쌓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저희 회사만도 연간 250만 톤에 이르는 병커씨유를 쓰는데, 그 연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연료비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병커씨유 선물 거래를 통해 위험에 대비(리스크 헤징)하는 거죠.” 거래되는 물품은 석유제품이지만, 사무실 업무 풍경은 외환 딜러와 비슷하다. 가격변동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일이다.

“해운영업을 할 때도 세계 곳곳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그 때는 날씨나 항구 위치 등 지리적인 이슈였다면 이제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집트 사태처럼 유가에 민감한 일들을 특히 눈여겨보게 되죠.” 이를 위해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 유명 통신사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있다.

해운업 종사자로서 박 대리는 한국이 맺은 FTA로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FTA 맺기 경쟁을 벌이면서 향후에는 FTA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될 거예요. 처음엔 활용을 하지 않으면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 할 거라면 빨리 시작해 가격 선점 효과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FTA활용 석사과정’을 소개합니다

FTA 선도할 ‘싱크탱크’급 인재 양성

기획재정부의 ‘FTA활용 석사과정’ 지원 사업에 7개 대학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 수도권 지역은 3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을 선정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4개 대학(충남대, 경북대, 부경대, 조선대)을 선정했다. 글/이진원 기자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결해 줄 전문가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14개 대학(15개 과정)이 신청해, 서면심사 및 대학의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향후 사업 협약 체결(2월) 및 대학원별 신입생 모집(대학별 12~25명, 경북대는 2학기부터) 등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입생은 대학별로 학부졸업생, 중소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한 직장인 또는 FTA 관련 공무수행자 중에서 자율 선발하며, 수업형태 등 학사운영도 대학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대학별 교육과정 운영비·장학금 등의 일부(학교별 9,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2017년까지 재정지원을 계속해 이들 대학을 FTA활용 전문 인재 양성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원금 일부를 장학금 지급 또는 등록금 감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FTA활용 석사과정 운영 현황

대학명	학과	과정 형태	수업 형태	모집 예정 인원	수여 학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 신설	야간/주말	20명	국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강의프로그램 도입	주간 위주, 야간 주말 과정 개설	25명	경제학석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강의프로그램 도입	야간/주말	12명	경제학석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무역학과	학과 신설(계약학과)	야간/주말	20명	무역학석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무역학과	석사 과정 신설	주말	12명	경제학석사
부경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과	과정 신설	주간(일부 야간)	16명	경영학석사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학과 신설	주말/야간	20명	무역학석사

※위 현황은 대학별 지원신청서 기준으로 학사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미니 인터뷰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협정문 이해하고
 통상전략 짤 수 있게 할 것”**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가 실행되면서 FTA활용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통관업무에 특

화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FTA 협상 전 단계에서부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또한 필요하다. 한국이 그간 맺어온 FTA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FTA 협상에 나서게 되면서 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라고 FTA활용 석사과정을 소개했다.

석사과정은 협정문을 국문·영문으로 이해하고 다자협정, 양자협정 등의 실익을 분석해서 통상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있는 수준으로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울대의 경우 이 과정을 마치면 국제학석사를 수여받게 되는데, 이후 대학, 외교통상부,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학 중에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 중이다. 안 교수는 “국제대학원에 수강 중인 개도국 16개국의 공무원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가져볼 생각이다. 향후 신흥시장과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FTA활용 지침서 ‘FTA, 내 손 안에’ 저자 3인방이 말하는
“FTA 활용, 어렵지 않아요”

FTA활용의 본부 격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상담과 컨설팅을 직접 담당하는 양태종·이용만·이민선 관세사가 의기투합했다. 그간 상담한 노하우를 담은 ‘FTA, 내 손 안에: 현장애로 100문 100답’을 펴낸 것. 딱딱한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컨설팅을 하는 듯한 100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 기업 실무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인 것이 특징이다.

글/우중국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Q 저희 회사는 터키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코드: 5404)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터키 측에서 해당 품목에 34.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터키 FTA가 2012년 8월에 정식서명이 되었고, 2013년 발효를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덤핑방지관세는 없어지는 건가요?

A 덤핑방지관세 적용 시 관세율은 ‘실행관세율+덤핑방지관세율’입니다. 즉 덤핑방지관세는 실행세율에 추가되는 세율로 FTA가 실행되더라도 덤핑방지관세는 기존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FTA 발효로 실행세율이 철폐 또는 인하될 경우 철폐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기존의 FTA 실무책자는 교과서와 같은 딱딱한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FTA의 정의 및 내용, 원산지 결정 기준, 인증 수출자제도, 사후관리 및 검증, FTA활용지원제도처럼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FTA 내 손 안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질문을 찾아 답을 볼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실제 상담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술술 읽다 보면 어느새 FTA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된다. 이론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실제 작성 예시를 보여줘 실무 능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1년 가까이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상담한 관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었다.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양태종 관세사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



중소기업들을 상담한 내용을 100문 100답 식으로 담은 ‘FTA, 내 손 안에’를 펴낸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관세사들. 왼쪽부터 양태종 관세사, 이민선 관세사, 이용만 관세사.

록 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을 받은 내용을 반영했다. FTA 관련해서는 아직 일반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없었던 것이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 기초부터 원산지 발급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용만 관세사는 “FTA 활용을 어렵다고 여겨 시작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FTA종합무역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문을 두드리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이민선 관세사는 “영세한 업체일수록 일손도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류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검증에서 적발되면 페널티(벌금)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상중계·1 한국무역협회의 ‘겨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특강’ 젊음의 열기로 FTA에 귀 ‘쫓긋’

지난 1월 24일 오전, 코엑스 4층의 무역아카데미 태평양강의실. 50명의 대학생들이 한창 FTA 강의에 귀를 쫓긋 세우고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개설된 ‘겨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특강’ 과정에서는 이날 ‘FTA 원산지 실무’를 강의했다. 강의 시작부터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하나라도 더 이해하려는 ‘예비 무역전사들’의 열의에 한겨울 추위마저 녹아내릴 정도였다.

글/이현주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HS코드가 무엇이나? 세상 모든 물건에는 HS코드가 붙어 있어요. 무역에서는 이 HS 코드가 그 제품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누구는 니트라고 부르고, 누구는 브이넥, 누구는 풀 오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품명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이 날 강사로 초청된 허상혁 세정관세법인 관세사의 강의는 세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긴 시간 흐트러짐 없이 수업에 열중했다. 학생들의 관심은 강의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Q&A) 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수병에 ‘한국산’이 써어 있는데, 이걸 한국산이 아니냐”는 물음에 허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산지와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는 다르다. 옷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한국산인 것이 아니고, FTA에서는 옷에 해당하는 HS코드를 확인한 후 협정에 따라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리한 질문도 나왔다. “역내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가격이 비싸도 한국산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근데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은 수입자가 보는데, 그럼 수출자는 손해인 것 아닌가요.(수강생)” “그래서 최근에는 수입자의 혜택을 보기 위해 수출자가 현지법인을 세워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 인하 혜택을 같은 회사가 볼 수 있겠죠.(허상혁 관세사)” 겨울방학 대학생 무역실무특강은 방학 동안에만 개설되는 과정으로 총 11일(매일 10~17시) 동안 이어진다. 학생들 대부분이 수강료 35만 원을 개인부담하면서 들을 정도로 FTA 강의에 강한 열의와 의욕을 보였다. 남보다 앞선 경쟁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서 ‘노력하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

미니 인터뷰

김예진 가천대학교 무역학과 11학년
“해외마케팅 전문가 될 거예요”



‘대학생 무역실무특강’을 수강하고 있는 김예진 씨는 이제 갓 2학년을 마친 상태다. 취업준비생은 아니지만 미래의 무역학도로써 일찌감치 무역 실무를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강의를 신청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나중에 직접 무역을 하게 된다면 영상이나 미술 등 콘텐츠의 해외마케팅을 해보고 싶어요. 평소에 무역협회나 코트라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인데, 마침 듣고 싶은 강의가 있었어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생소한 FTA 용어들이 나왔지만, 김 씨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밌었다고 한다. “FTA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무역학과 재학생으로 김 씨는 FTA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저도 처음엔 쌀 문제 등 부정적인 면에 귀를 기울였지만, 정보를 더 얻다 보니 농업에서도 이노베이션(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중 FTA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이익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중계·2 한중일 기업인 신년교류회 미국, 유럽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 탄생 기대

지난 1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는 한중일협력사무국이 주최한 ‘한중일 기업인 신년교류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중일협력사무국은 2011년 9월 3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중·일 FTA 추진의 물밑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일 기업인들 200명 이상이 참여해 3국 경제협력에 대한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대표자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았다. 글/이진원 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데, 이들 경제가 위축되면 3국 경제도 동반 위축되는 취약한 교역 구조다. FTA를 통해 역내 내수 시장 확대와 동북아 공급망이 강화되면 3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기업인 여러분들과 축하하는 자리만큼 그 의미를 잠시 짚어보겠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정치·외교적 의미로, 3국의 경제·통상 관계가 제도화되면 3국의 기업인들은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한·중·일 3국은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 경제가 위축되면 3국 경제도 동반 위축되는 취약한 교역 구조다. FTA를 통해 역내 내수 시장 확대와 동북아 공급망이 강화되면 3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황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중국은행 한국대표



대신할 수 있다. 3국은 수직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면서 비교우위에 따른 보완보다 시장수요에 따른 보완으로 바뀔 것이다.”

“중국 당(唐)시 중에 ‘10년 두고 칼 한자루를 간다’는 말이 있다. 한·중·일 FTA가 2002년 제기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인구 15억 명, GDP 15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시장이 탄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시아 시대가 탄생하게 된다. 과거 3국은 유럽 및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는데, 통합된 동방시장이야말로 서방시장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다. 3국은 수직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면서 비교우위에 따른 보완보다 시장수요에 따른 보완으로 바뀔 것이다.”

신봉길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총장



극복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중·일 세 나라는 최근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3국 협력의 지평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지난해 3국 교역량이 7,350억 달러라는 규모에 이르렀고, 일주일에도 2,000회 이상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최근 전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감각을 지닌 젊은 리더십이 등장했다. 이런 리더십이 최근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고바야시 타다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스미모토 코리아 대표



협상이 개시되어 경제인으로서 기대가 높다.”

“일본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분야에서 서로 의존하며 두터운 관계를 쌓았고,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서울재팬클럽은 2011년부터 한·일 FTA의 협상 재개를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일 FTA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중국측 참여로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되어 경제인으로서 기대가 높다.”

서두르는 만큼 득이 되는 신흥국 FTA 떠오르는 유망주, 신흥국을 잡아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선진국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이를 그대로 '흥(興)'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재정절벽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재정지출 축소를 신흥국이 메워주면서 신흥국의 수요가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신흥국의 내수 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며, 한국은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신흥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글/이홍표 기자

한국의 경제영토(전 세계 GDP에서 자국 및 FTA 체결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는 세계 3위다. 지리적 영토 면적 109위의 한국이 경제영토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와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덕이다. EU의 GDP는 세계 1위의 경제권역이며,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GDP 세계 1위다. 연이은 선진 경제권역과 FTA 발효로 한국은 경제영토를 넓힘과 동시에 선진국 대열 진입의 가속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몇 해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전 세계 경기는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U는 2009년 -4.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0년 2.0%, 2011년 1.4%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역시 2011년 1.8%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음하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신흥(新興)'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연이은 위기로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의 경기가 위축되는 동안, 중국, ASEAN(아세안) 등 신흥국들이 고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가 GDP다. 2013년 신흥국의 명목 GDP 전망치는 44조1,240억 달러로 선진국 42조7,120억 달러를 앞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 측면에서도 신흥국의 성장세는 감지된다. 1월 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의 신흥국 투자 규모는 8조7,000억 달러로, 선진국(8조3,000억 달러)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희진 드로잉

2010년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경우, 지난해 연간 GDP 총액 51조9,322억 위안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위안을 돌파했다. 연간 성장률은 7.8%, 가히 '세계의 시장'이라 불릴 만하다. 또 다른 신흥국인 인도 역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 5.9%, 10.1%, 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의 동향을 나타내는 광공업 생산 추이에서도 신흥국의 맹렬한 성장세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유로존, 일본 등의 선진국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과 달리 신흥국은 2000년대 초중반보다 1.5~2배가량 증가했다.

국내 수출 시장의 돌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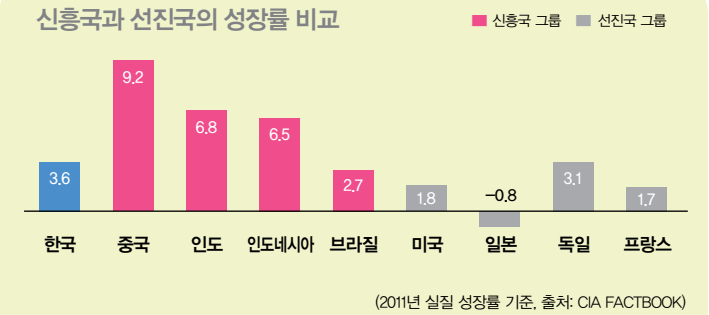
이러한 신흥국의 부상은 국내 수출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신흥국과의 FTA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간 체결됐던 신흥국과의 FTA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아세안 FTA를 들 수 있다.

아세안은 총인구 약 5억7,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1980~1990년대 연간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권이다.

한국은 아세안과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2009년 5월에 서비스협정, 2009년 9월 투자협정을 발효시켰다. 이 기간 동안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대상이 됐다. 교역액은 FTA 발효 전년도인 2006년 618억 달러에서 2012년 1,312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수출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음하던 2011년과 2012년의 대 아세안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35.0%, 10.4%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선진국 경기 후퇴에 따른 수출 감소를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브릭스(BRICs) 국가인 인도와 맺은 한·인도 CEPA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2년 선진국 재정위기의 여파로 양국 간 한 해 동안의 교역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성적은 A를 줄 만하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것은 2010년 1월. 이후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했다. CEPA 발효 이후 선박, 증기 발생 보일러 등의 품목이 수출을 이끌더니, 발효 첫 해인 2010년의 대 인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7%가 급증,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성장을 비교



내수와 자원 확보로 '일거양득'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원 확보에 있다.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자원 민족주의와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자원 수요국이 출현하면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과의 FTA를 통해 광물 자원 협력을 강화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성장을 더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다.

신흥국과의 FTA의 중요성은 '선점 효과'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무역 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한국에게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보해 수출 극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 선점 실패로 시장 자체를 잃어버린 사례는 2005년 4월 발효된 일본·멕시코 F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효 후,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산 타이어는 무관세 혜택의 날개를 달고 수출이 급증한 반면, 한국산 타이어에는 관세가 23%에서 45%로 인상돼 한국 업체들이 대박 시코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경제영토 세계 3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지인 걸프협력회의(GCC), 자원 부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경제 블록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개별 FTA까지, 개척해야 할 신흥국 시장은 많이 남아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폭발적인 성장세의 신흥국은 향후 한국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시장임에는 분명하다. 이들과의 FTA를 얼마나 빨리 타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의 미래는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발효 4년차 맞는 한·인도 CEPA 평가와 비즈니스 전략 성장 잠재력 ‘무궁무진’... FTA 효과 본격화 단계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가 올해로 발효 4년차를 맞고 있다. 12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최근 주요국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인도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 CEPA는 발효 4년차에 접어들면서 관세 인하폭이 더욱 커져 FTA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경제학 박사)

인도의 경제 중심 도시인 뭄바이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다. 초호화 주택이 우뚝 솟아있는가 하면 뒷골목에서는 헐벗은 옷차림의 가족들이 노숙을 하고, 최고급 수입차, 사이드미러조차 없는 경차, 릭사(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가 차선 구분도 없이 뒤섞여 달리는 풍경은 인도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인도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시장 잠재력이다. 인도는 2030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양국 간
교역 증대에
크게 기여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던 중국과 달리 인도의 제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재 인도 제조업은 GDP의 16% 수준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 그친다. 그러



양국 간 교역 증대

“ 양국 교역품목의 대부분이 한·인도 CEPA 양허안에 따라 5~8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간이 갈수록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것은 양국 간 교역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

나 정부 차원에서 10년 전부터 제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중국을 대신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인도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인도와 FTA를 추진해, 지난 2010년 1월 한·인도 CEPA를 발효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한·인도 CEPA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발효 1~2년차까지는 아주 좋았고, 발효 3년차인 지난해는 양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2010년 발효 첫해 양국 간 교역은 40.7% 증가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도 교역은 20% 이상 증가해 연평균 약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양국 간 교역 증가율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인 약 26%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9년 약 122억 달러에서 2010년 171억 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2011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선 20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양국 교역규모는 188억 달러로 2011년 대비 약 9.1%나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이 약 1.1%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큰 폭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도 2011년엔 전년대비 각각 5.8%와 12.3% 감소했다.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에서 수출입이 감소한 품목을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냉면 및 열연 강판, 화물선, 합성고무, 수입에서는 나프타, 합금철, 면사, 부타디엔 등 모두 원부자재 혹은 중간재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제품들이다. 실제로 인도는 2012년 들어 9년만의 최저 수준의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지난해 양국 경기상황은 좋지 않았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 5.3%로 둔화되면서 지난 2003년 1분기 3.6% 성장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5.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있다. 원유 등 에너지의 7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수입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점하던 유로존 경제위기로 수출부진이 확대돼 2011년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인 1,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양국 간 교역규모는 양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

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의해 양국 교역이 감소한 것이어서 경기만 회복되면 양국 교역은 다시 빨리 증가할 것이다. 특히 양국 교역품목의 대부분이 한·인도 CEPA 양허안에 따라 5~8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간이 갈수록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것은 양국 간 교역증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
인도 투자
적극 나서야

최근 인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메가톤급 경제 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수 년 간 화석연료 가격을 낮

추고자 안전함을 써온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료보조금을 줄여 경유 가격을 12% 인상했다. 멀티브랜드 소매업 외국인직접투자를 51%까지 허용해 월마트, 까르푸 등 할인점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 항공업체 49%, 전력거래소 49%, 케이블TV·방송 부문 74% 등의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을 풀었다. 국영기업 5곳의 주식매각도 허용했다.

또한 특정 부문 기업의 해외자금 차입한도 상향 조정, 대형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상 장애물 제거,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 투자 제한 완화 조치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인도의 소비 주도 중산층이 5년 이내 67%라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도 호조 요인이다. 인도국가은행경제연구소(NCAER)는 인도 중산층이 현재의 1억6,000만 명(3,140만 가구)에서 2015년에는 인도 전체 인구의 20.3%, 2025년에는 37.0%인 5억4,700만 명(1억1,380만 가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인도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은 2011년 인도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인도 시장의 움직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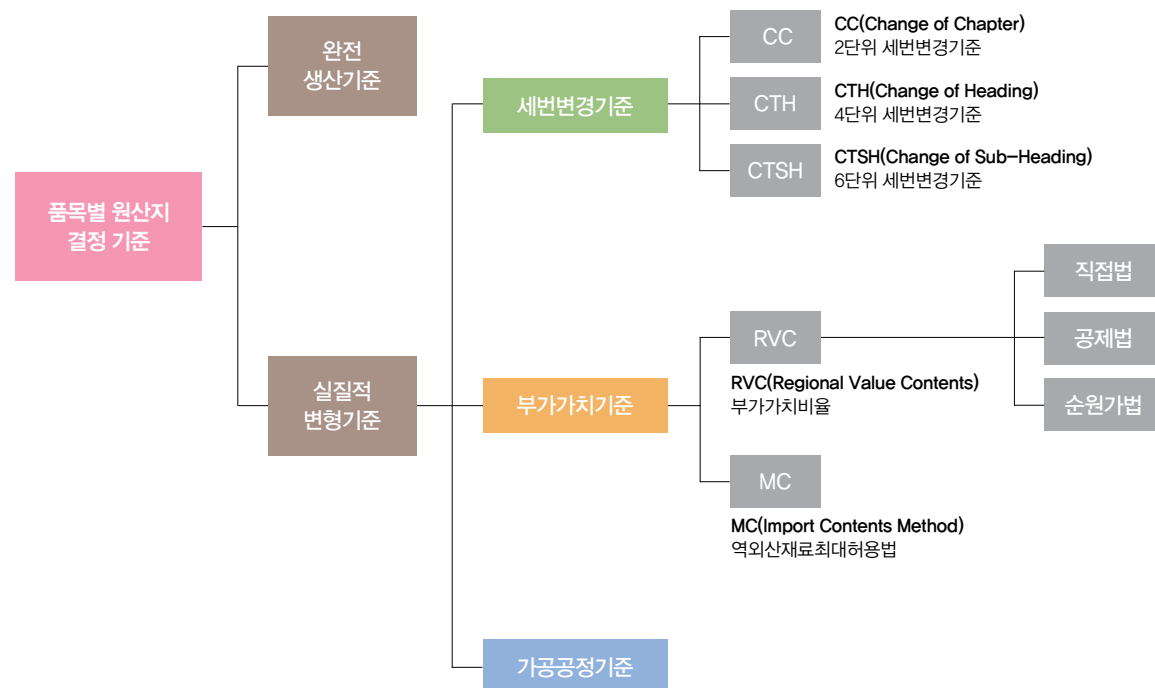


FTA활용 탐구생활_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협정문의 요건을 만족해야 역내산 인정

우리가 흔히 보는 옷이나 전자제품의 레이블에 쓰인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종 가공이 이뤄진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FTA에서는 최종 가공이 아닌,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져야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변형의 기준은 각 협정과 품목별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HS코드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글/이용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01

완전생산기준

어느 한 국가에서 해당 재료들과 물품이 모두 생산되었을 경우 '당연하게도' 이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 완전생산기준이다. 주로 농수산물, 광업제품처럼 1차 산업이 주로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철과 플라스틱의 원료인 철광석·석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으므로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완전생산기준에서 주의할 점은 생산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직접 생산하다 보니, 이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간과하기 쉽다는 점이다. 농산물의 경우는 농지원부, 직불금 내역, 수매·출하확인서가 증빙서류로 이용되고, 수산물의 경우 어업면허권이나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수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사용된다. 특히 원양어획물의 경우 협정별로 자국선박요건 및 영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02

실질적변형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국가가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의 3가지가 있는데, 협정별 품목별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기준(조합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2-1. 세번변경기준

세번이란 HS코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상품(거래되는 물품)에는 HS코드가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6자리 HS코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1~2번째 숫자는 '류(chapter)', 3~4번째 숫자는 '호(heading)', 5~6번째 숫자는 '소호(sub-heading)'라고 부른다. 세번이 바뀌면 재료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세번변경기준이다. 협정문에는 '다른 류(호/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부가가치기준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2-2. 부가가치기준

물품이 생산·가공되는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재료비에서부터 노무비, 경비, 판매비, 관리비, 마진까지 계산해야 하다 보니 입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세번변경기준보다 많이 든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서 역내산 판정이 불가능할 때 대안으로 사용하게 된다. 협정과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세번변경기준과 동시에 만족(조합기준)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2-3. 가공공정기준

재료의 역내산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단독으로는 어류·식물성 생식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동시 적용)은 주로 섬유류에 많이 쓰인다. 19페이지 사례(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소개된 여성용 코르셋(HS코드: 6212.90-0000)의 경우 한·미 FTA에서의 역내산 기준은 'CC(2단위 세번 변경)+재단·봉제'로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을 뜻한다.

FTA

News

정리/이현주 기자

제2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컨설팅 내실화, 대학 내 교육 강화하기로

기획재정부는 1월 24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추진되었던 지역별 FTA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에는 'FTA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형 FTA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발굴해냈다고 평가했다. 대구광역시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FTA-PASS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지원기업의 FTA-PASS 활용률이 75%로 증대(0→75%)되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광역시는 농업 분야를 한류로 만들겠다는 'K-FARM'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의 FTA 수출활용률이 73.9%로 증가(34.8→73.9%)하며 농어업도 FTA 활용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 경기도 평택시는 대미 수출기업 체질개선 사업을 통해 FTA-PASS를 보급해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관리 내실화를 도모했다.

한편 올해 FTA 활용지원 개선방안으로는, FTA 컨설팅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노력을 지속하여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사후관리 및 기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FTA 강좌는 책임교수의 강의 확대 등을 통해 관세사, 공무원 등 외부강사 위주로 되어있는 강의의 대학 내부 강의화를 유도하고 강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FTA 정보 제공의 경우 기관 간 웹사이트 차별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트레이드내비' 그랜드 오픈 FTA 체결국 무역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식경제부와 한국 무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정보 제공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EU(2012년 1월 시작), 미국(2012년 10월 시작)에 이어 인도, ASEAN(10개국) 무역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해 그랜드 오픈했다. 트레이드내비는 HS코드별로 관세율을 비롯하여 기술·환경규제, 국제인증, 수입요건 등을 통합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시스템이다.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과 각국의 다양한 무역장벽 등으로 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원 스톱, 원 클릭'으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1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FTA원산지관리' 발간 FTA 원산지 관리, 쉽게 도와드립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FTA 원산지 관리요령을 쉽게 풀어 쓴 가이드 북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FTA 원산지관리'를 지난 해 12월 말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FTA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의 실무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원산지관리 요령 △시스템 지원 사업안내 △원산지관리 시스템 사용설명서 △시스템 활용사례 등 시스템 활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은 협정별·품목별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 양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HS 분류, 원산지결정기준의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어 상황이 변화더라도 기업 실무자가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번 책자는 여러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의 활용을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무역업계 관련 업무 담당자의 필독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FTA 원산지관리'는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지역본부를 통하여 배포되고 있으며, 무역협회 전자도서관(<http://ebook.kita.net>)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미 FTA,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 원산지 기준 추가 2012년 3월 15일부터 원사기준에 따른 관세환급 소급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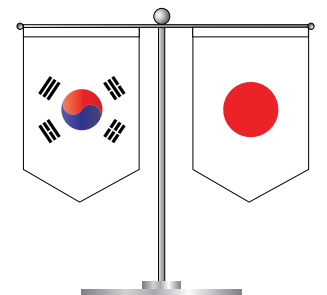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협상 당시 누락된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HS코드: 6104.32)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여타 의류제품과 동일한 원사기준으로 국내 또는 미국산 원사 및 직물 사용과 재단(또는 편직공정) 및 봉제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동 제품의 우리나라 기본 관세율은 13%(미국은 14.9%)이며, FTA 양허세율은 양국 모두 즉시철폐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무관세 수입된다. 또한 2012년 동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6만2,000달러, 수입액은 8만7,000달러를 기록했다.

제12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개최 결과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은 1월 10일(목) 일본 도쿄에서 가와이 치카오(河相 周夫)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2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갖고, 한·일 관계, 북한 문제, 동아시아 정세 및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한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한·일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10월 출범한 협의체이며, 2011년 6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양 차관은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쌓아 가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한·일 외교당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단되고 있는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알고 보면 비슷한 한·중·일 설맞이 풍경

떡먹기·세뱃돈 ‘똑같네’...3국은 이미 ‘문화공동체’

현재 협상이 개시된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다. 한·중·일 3국은 특히 한자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세시풍속 또한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도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이점을 가졌다. 설을 맞아 한·중·일 3국의 설 풍속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소개한다.

글/이현주 기자 사진/한국경제신문

차례와 참배의 차이

우리나라는 음력 정월 초하루 즉 1월 1일을 설날로 하고, 이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중국 역시 음력 정월 초하루를 춘절(春節)이라고 하여, 설날로 삼고 가족 친지가 모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따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는다. 한편, 일본은 음력설을 지내지 않고 양력 1월 1일을 쇼가츠(정월, 正月)라고 하여, 설날로 삼고 있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설날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대신 기모노 차림으로 가까운 절이나 신사를 찾아 하츠모우데(初詣)라는 새해 첫 참배를 올린다. 보통 한 해의 무사평안,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 설날 첫 참배가 그 해의 운수를 결정짓는다고 하여 새해 첫날에는 전국 각지의 신사들이 참배객들로 성황을 이룬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新年快乐
(원니엔과일리)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 ”
(아케마시메오메데토)



세뱃돈을 주고받는 기쁨은 삼국 공통

설빔을 입고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 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세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정(情)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설 풍습이다. 이때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데, 예전에는 복주머니에 넣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복주머니가 그려진 종이봉투나 일반적인 종이봉투에 넣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역시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의 어른들에게 새해를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새해 인사를 전하곤 한다. 이를 빠이넨(拜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따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사말을 나누는 것에 그친다. 이때 인사를 받은 어른들은 홍빠오(紅包)라는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준다.

일본도 세배를 하진 않지만 오토시다마(年玉)라고 하는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다. 보통 연 문양이나 매화 문양처럼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는 세뱃돈용 봉투나 일반 봉투, 봉투가 없으면 종이에 싸서라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가 직접 어른에게 세뱃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 직접 아이에게 주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국 삼색 설 풍습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설날 아침에 집 밖이나 벽에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복조리를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다. 복조리는 옛날 쌀을 이는 역할을 했던 조리처럼 새해의 복을 빌라는 의미와 복을 얻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낸 후 윗놀이·널뛰기·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기는 것 역시 즐거운 설 풍습 중 하나다.

중국의 색깔하면 빨간 색이라 할 수 있다. 경사스러운과 길함, 행복 등을 상징하는 빨간 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답게 설날 즈음에는 전국이 온통 빨간색 장식물 일색이다. 빨간 종이나 천에 글귀를 적어 기둥이나 벽에 붙이는가 하면, 홍등을 내걸어 장식하기도 한다. 특히 그 해가 자기 띠가 되는 사람은 붉은 색 속옷을 입어 행운의 상징으로 삼기도 한다. 또한, 낡은 것을 보내고 신년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폭죽놀이도 성대하게 즐긴다. 폭죽은 특히 명절 분위기를 내는데 적격이지만, 실은 폭죽의 눈부신 빛과 요란한 소리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행운의 상징으로 집안 현관이나 기둥에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가지를 엮은 뒤 길하다고 여겨지는 매화, 대나무 등을 곁들여 장식하는데 이를 카도마츠(門松)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길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재료들을 금줄처럼 달아놓은 시메카자리(注連飾り)는 흔히 카도마츠와 함께 대문에 장식하는데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풍성한 설음식에 행복을 기원

우리나라 설음식의 대표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떡국이라 할 수 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각 지방에 따라 모양이나 재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래떡을 썰어 넣어 끓인다. 진한 떡국 한 그릇은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에서라도 빠트리면 섭섭한, 가장 대표적인 설음식이다.

지역이 방대한 만큼 중국의 설음식은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떡과 교자(만두)만큼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즐겨먹는 설음식이라 할 수 있다. 니엔까오(年糕)라 부르는 새해 떡은 매년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는 음식으로, 보통 금과 은을 상징하는 황색과 백색으로 빚는다. 새해 전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교자를 빚는데, 교자가 중국 고대 돈 모양과 비슷한 까닭에 교자를 먹으면 재산이 늘어난다는 속설이 있다.

일본의 설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토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와 오세치요리다. 토시코시소바는 새해 전날 밤에 먹는 메밀국수다. 국수처럼 가늘고 길게 건강하게 지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밤 12시 이전에 다 먹어야 하고, 만약 1월 1일이 될 때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기면 새해에는 금전운이 없어진다고 전해지고 있다. 



2012년 한국의 10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 우세, 베트남·인니 중요성 커져


글/우중국 기자

관세청이 1월 14일 발표한 ‘2012년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가 잇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으로 1,343억 달러를 수출했다. 2011년 수출 1,342억 달러와 큰 차이는 없지만, 플러스(+) 증가를 유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4.5%에 해당한다. 이는 수출대상국 2~4위인 미국, 일본, 홍콩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크다. 2위인 미국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585억 달러를 수출했다. 2011년 562억 달러보다 23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지난해 3월 한·미 FTA가 처음 발효 되면서 FTA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3위인 일본은 근소한 차이로 수출이 줄었다. 한국의 일본으로의 총 수출액은 388억 달러로 2011년 397억 달러보다 9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2010년 281억 달러이던 대일본 수출액은 동일본 지진 피해로 인해 2011년 397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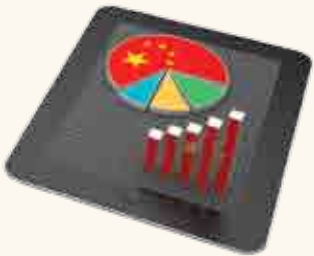
홍콩과 싱가포르 또한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중계무역 국가답게 한국의 수출 4, 5위 국가로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다. 6위인 베트남의 경우 새롭게 한국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다. 2010년 9위, 2011년 8위에 이어 지난해는 6위로 올라섰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생산재 수출이 점점 늘어난 것이 이유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도 중요한 수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은 2010년 88억 달러, 2011년 135억 달러, 2012년 139억 달러로 최근 크게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개방 수준을 높인 개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0대 수출 대상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	1343억3100만 달러	24.5%
2	 미국	585억2400만 달러	10.7%
3	 일본	388억5000만 달러	7.1%
4	 홍콩	326억0900만 달러	5.9%
5	 싱가포르	228억9200만 달러	4.2%
6	 베트남	159억5400만 달러	2.9%
7	 대만	148억1900만 달러	2.7%
8	 인도네시아	139억4600만 달러	2.5%
9	 인도	119억2100만 달러	2.2%
10	 러시아	110억9900만 달러	2.0%

(자료: 관세청)



Reader's Letters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를 읽으면서 FTA가 우리 농업에게 위기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FTA 활용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aT 등 많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과 홍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등 수출 전략 종목으로써 우리 농업에 많은 부분 기대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강창규(대전시 중구 목동)

“신년호 ‘함께하는 FTA’에 소개된 ‘FTA 활용 팀’을 읽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주위 동료나 친구들에게 원산지증명서로 수수료 면제받기 질문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FTA 활용팀으로 FTA 업무 능력도 쑥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호우(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처음 만난 ‘함께하는 FTA’에는 도전하고 알아가야 할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FTA 활용팀’과 ‘FTA활용 성공사례’의 현장감 넘치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FTA 교과서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유빈(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변함 없이 알찬내용으로 가득한 ‘함께하는 FTA’ 2013년 첫 호를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올해도 ‘함께하는 FTA’ 덕분에 FTA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한해를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앞으로도 꼭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독자가 응원합니다.”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도전!
FTA퀴즈

한·중·일 경제공동체 규모는
세계 몇 위일까?



다음 문장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답을 적으세요.

FTA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1 지난해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중·일 통상장관은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20.5%(14.3조 달러)로 NAFTA 25.7%(18.0조 달러), EU 25.1%(17.6조 달러)에 이어 세계 위의 경제블록이 된다. (난이도★)
- 2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지난해 3월 발효된 한· FTA는 섬유수출에 획기적 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0월까지 전체 섬유류의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지만, 대 수출은 5.9% 증가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난이도★)
- 3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명은?) 지난해 한국에서 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343억 달러로 연간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수출비중은 24.5%로 지난해 24.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난이도★★)
- 4 지난해 11월 18~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에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다. RCEP 협상에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해 아세안(10개국), , 호주, 가 참여하고 있다. (난이도★★★)
- 5 흔히 보는 상품 레이블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는 최종 가공된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이뤄져야만 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변형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실질적변형기준은 다시 변경기준, 가치기준, 공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난이도★★★★)



당신의 FQ(FTA 지수)는?

- 0개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군요.
- 1~2개 이제 FTA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군요.
- 3~4개 제법이시군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 5개 당신은 이미 FTA 전문가!

인터넷: www.okfta.or.kr

모바일: m.okfta.or.kr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원산지 OK! FTA활용 OK!

FTA 특혜관세율, 원산지기준, 지원사업 안내
FTA 최신정보에서 인터넷 상담까지
OK FTA에서 모두 해결하세요.



1. 체결정보

- FTA협정문,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의 FTA체결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2. FTA특혜관세율

- 최신 업데이트된 품목별 수출입 FTA특혜관세율 정보를 체결국별로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기준

-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모든 FTA협정별로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FTA활용

- FTA지원사업 안내, FTA활용방법, 성공사례 동영상 교육을 통해 FTA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자료실

- 최신 FTA정보, 세미나 동영상, 각종 보고서, 법령/서식 등의 정보를 협정별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6. 모바일 서비스

- 스마트폰을 통한 관세율, 원산지기준, 협정문, FTA활용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
- 관세사 등 국내 최고의 FTA전문가가 여러분의 FTA활용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스마트 고객 상담 운영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T. 1566-5114 / okfta.or.kr